

科學技術學會 活動 略史 (2)

大韓化学會 篇 (上)

1. 창립에서 6·25동란에 이르기까지

해방후 초기의 혼란을 겪는 중에서도 京城大學 理工學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化学會 설립운동과 工業試驗所 인사들을 중심으로한 화학관계 기술자들의 결속운동은 꾸준히 계속추진되어 왔었다. 초기의 혼란이 차츰 수습되고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기 시작함에 따라 이 두운동을 합친 통합된 학회설립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 기관의 인사들 사이에 이를 위한 대화가 오고 가던 중 1946년 7월 7일 36명의 화학 및 화학공업 관계인사의 발기로서 京城工業專門學校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창립된 化学會는 李泰圭박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후 부득이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독립정부가 수립되어 사회의 질서가 차츰 회복되고 학원에도 안정이 찾아들게 됨에 따라 학회의 활동도 재개될 가망이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3일 만 2년만에 간사회가 재개되기까지 이르렀다.

대망의 제 1차 총회 및 年會는 이리하여 1948년 9월 6일 국립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리게 되었다. 총회에서는 會則의 일부를 개정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회장에는 초대 회장 李泰圭박사를 제 2대 회장으로 재선출하였다. 본래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키로 會則에 규정되어 있으나 학회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제 2회 총회는 연기를 거듭하던 끝에 1949년 12월 15일 소공동 소재 大韓商

工會議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제 3대 회장에 安東赫박사를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차츰 궤도에 올라서려던 학회활동은 뜻하지 않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고 다시금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회 사무소를 두고 있던 淸涼里소재 서울大學 校 文理科大學 理學部가 전소됨에 따라 학회회의 일절기록과 모든 서류와 그간 발간된 제 1권이 소실되었을 뿐만아니라 회원가운데서도 적지않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2. 釜山 피난시절

동란으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학회기능의 재건운동은 그후 1951년 임시 수도 釜山에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학교등이 釜山으로 모이게 되어 1951년 2월 26일 피난후 간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부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회 및 年會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 3회 총회 및 年會의 개최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년 4월 8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제 3회 총회와 年會가 있었으며 제 4대 회장에 金東一박사가 선출되었다.

학회는 이어서 당면 사업으로 문교부의 위촉을 받은 화학술어제정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화학술어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우선 기본술어제정에 착수하였다고 회의 재정비를 거쳐 전시의 핵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학회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구나 회지발간은 꿈조차 꿀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회장단과 간사진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1952년 7월에는 학회지 제

2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12월 13일 제 4회 회이 권회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속가교에서 개최하고 제 5대 회장에 金東一 박사를 재선출하였다.

제 4회 년회를 마친 후 학회는 회지 제 3호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던중 이듬해인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이어서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이 서울로 환도하게 됨에 따라 학회도 그 사무소를 서울로 옮기고 학회활동의제 3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황폐에서의 재건시야의 확대

휴전과 환도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서울에의 환도가 1953년 8월 중순경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이나 연구소 건물 자체에는 대체로 피해가 크지 않은 듯 하였으나 서울대 문리대 이학부는 완전히 파괴되고 灰燼되었다. 시설과 기재도 아까웠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충실하던 화학학술잡지(세계 각국의 주요한 화학관계 학술잡지는 창간호부터 해방 수년전까지 완비돼 있었음)가 몽땅 소실 내지 일산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환도후의 학회 4호지 나오기까지

1956년 2월 23일 간사회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초청단체 지정 통지와 신입대표 통지의 건을 토의하고 金東一 박사를 신입대표로 선출, 7월 19일 대한약학회와 공동으로 비타민 B₁₂의 합성자 Williams 박사와 미국 Cornell 대학교 Kurtz교수 초청강연회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하였다.

1957년 11월 23일, 24일 제 6회 년회와 연구발표회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는 제 7대 회장에 趙廣河 박사가 선출되었으며 회지 제 4권이 배포되었다. 이후 제 반사정의 불여의로 본회활동이 활발치 못 한채 1960년에 이르렀다.

4. 會勢 확대를 위한 기구개혁

1960년 10월 26일 “비상 평의회에서 열면회의 끝에 간사회가 제출한 임기 1년의 간사장 책

임제와 간사의 單數制 부회장수의 제한 철폐 및 평의원의 확대안과 운영의 긴급기금을 평의원에서 만원씩 거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기구개혁의 회칙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새 제도하의 대임을 맡을 임원선정 절차에 들어가 인선위원 선정을 故 趙廣河 회장에 위임하였다. 이후 11월 18일 제 7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중앙공업연구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제 8대 회장에 金東一 박사를 선임, 간사장 책임제 채택, 초대 간사장에 서울대학교수 金舜敬 박사를 선임하였고 11월 21일 간사장 金舜敬 회무를 인수하여 11월 24일 제 1대 제 1회 간사회를 소집함으로써 학회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5. 청년기를 맞이한 화학회

간사장제도의 확립과 회세의 확대

1960년 11월 24일 제 1대 간사회의 제 1회 간사회가 金 간사장실에서 소집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에는 회칙 개정에 관한 건, 분회규칙 세칙, 회지투고규정 작성, 평의원 회원명단 작성문제가 토의되었고 간사회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 제반규정, 규칙의 개정 보완, 회원확장, 재정확보, 회지 및 진보지발간, 화학초록편집, 국내 각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각종 잡지의 back number 목록작성 등 사업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5일 개최된 제 1회 역원회에서는 간사를 포함해서 25명이 모인 가운데서 金舜敬 간사장은 학술지와 Review誌(현재 “화학공업의 진보”) 발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1961년 10월 7, 8일 제 8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가 국립중앙공업연구소에서 개최되었고 어어 평원회의 결의사항인 IUPAC 가입의 보고, 회계년도(1. 1 ~ 12. 31) 개정, 임원임기 개정, 대한화학회상 제정이 있었다.

韓國化学抄録事業과 釜山·慶南지부의 결성

1945년부터 1955년까지 10년 동안에 발표된 국내 연구와 해외 특히 일본화학총람에 수록된 韓國과 관련된 연구분을 수집하여 한국화학초록 제 1집으로서 “화학공업의 진보지” 1961년

3월 발행 1권 1호지에 수록하였고 1955년부터 1955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및 일본화학총람중 韓國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한국화학초록 제2집 제1호로서 진보지 제1권 2호지에 수록되었다. 1962년 2월 26일에는 부산대학교 중강당에서 釜山·경남지부 결성 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가졌고 지부장에는 李衡圭 회원이 선임되었다. 3월 21일 “화학공업의 진보” 1권 1호(창간호) 발간, 4월 국립공업 연구소내에 사무실설치, 7월 20일 “대한화학회” 지 5권 1호를 발간하였다.

教科課程審議會

1962년 1월 15일 제1회 평의회에서 초대 회장 李泰圭박사의 회갑을 기념하는 논문집 발간 사업 추진, 1962년 1월 22일 오전중에는 金舜敬 박사 사회로 “화학공과 교과과정 심의회”와 成佐慶 부회장 사회로 “화공과 교과과정심의회”가 각각 진행되었다. 이어서 화학·교육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4월 21, 22일 제9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가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고 6월 30일 발간된 회지 제6권 제1호는 李泰圭박사 회갑기념호로서 李박사 사진, 약력 및 발표 논문 리스트를 게재하였다. 6월 26일에 가진 제30회 간사회에서는 美國화학회로부터 安東赫 박사를 chemical abstractor로 위촉한다는 서신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9월 15일 李泰圭 簡壽기념 논문집이 발간되었고 9월 22일 忠南지부 창립총회를 忠南대학교에서 개최, 9월 23일 全南지부 창립 총회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 하였으며 지부장에는 鄭寅福·崔貞基씨를 각각 선출하였다.

10월 1, 2일 제10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하고 제9대 회장에 安東赫 박사를 선출하였다.

국제적 활동무대에서의 진출

1963년 4월 17, 18일 양일간 제11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6월 6일에는 1963년도 美國화학회장이며 미국 Utah大学 大学院長 Henry Eyring박사가 화학회 초청으로 내한하여 1주일간 체재하면서 서울 및 大邱에서 도합 7회의 학술강연과 1회

일반강연을 한 후 6월 12일 離韓하였다. (대한화학회 25년사 65면 참조)

7월 5일에는 화학회 會를 대표하여 화학관계의 유일한 국제기구인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 가입을 신청한바 그 가입이 London에 열린 IUPAC 제22차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준되어 화학회 활동은 점차 국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으며 총회에 전회장 金東一박사 및 美國 Brown 대학에 체류중인 전간사장 金舜敬박사를 대표로 파견 참석하였다.

10월 18일 개최된 평의회에서는 명예회원 추대에 관하여 토의하고 美國화학회장인 Henry Eyring 教授를 명예회원으로 추대기로 하였고 IUPAC 가입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음이 보고되었다. 10월 26, 27일 제12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제 규정의 정비보완

제 4대 간사장 崔圭源박사는 학회운영에 있어 그 운영의 기준이 되는 본학회의 제 규정안 특히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계되는 제 규정안을 개정 보완 또는 새로 제정하여 정비하고 진보지 편집의 충실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 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계획을 세우고 간사회를 이끌고 나갔다.

1964년 1월 14일의 제2회 간사회에서 논문심사의뢰 공문양식을 결정하고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도록 하였다. 1월 18일의 제3회 간사회에서는 투고규정안을 작성하였다.

4월 17, 18일 제13회 년회와 연구 발표회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美國 Colorado 대학 교수이며 플루오르 화학의 세계적 권위인 朴達祚(Joseph D. Park)박사를 초빙하여 1964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학술강연, 시민을 위한 일반 통속강연, 좌담회등 다채로운 초빙행사를 가졌으며 화학회 초빙으로 9월 21일 귀국한 李泰圭박사는 1개월간 체류하면서, 서울, 大邱, 釜山, 光州에서 10회의 학술강연과 1회의 일반강연 및 좌담회를 하는 외에 공장, 대학 및 연구소등의 시찰등 다양한 일정을 마치고 10월 20일 이한하였다.

10월 16, 17일 제14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 여기에서는 초대회장 李泰圭박사와 플루오르 화학의 권위인 朴達祚박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였고 제10대 회장에 安東赫박사를 선출하였다.

화학교육 위원회의 발족

1965년 6월 4, 5일 제15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 동년 7월 16일 개최된 제3회 역원회에서는 화학교육분과위원회와 화학술어제정위원회의 규정안과 평의원, 당연직, 역원회, 구성원, 전문분과위원회 규정 시설에 따르는 회칙개정안이 토의되었다.

동년 6월 30일에 1964년 초빙된바 있으며 일본 내방의 기회를 가졌던 Joseph D. Park(朴達祚)박사를 초빙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시청각교실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 9월 6일에는 美国 Brandeis 대학교수인 Gordon Sato 박사의 특별강연회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시청각교실에서 개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慶南지부에서는 韓國화학회 慶南지부와 공동주최로 釜山市 후원을 얻어 고분자 기술강습회를 釜山市 慶南고등학교에서 개최, 10월 16일 제1회 화학교육 심포지움을 숙명여자 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10월 29, 30일 제16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개최하였다.

화학회관 건립사업 추진

安東赫박사의 회갑을 맞이함에 있어 安東赫 선생 회갑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1966년 2월 24일에 조직하여 국립공업연구소에 본부를 두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월 14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회갑 축하연을 조출한 가운데 성대히 마친 후에 安 선생 발의에 의한 대한화학회와 韓國화학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화학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4월 11일에는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화학회관 건립추진 위원회로 개칭, 7월 13일에 양학회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 조직에 대한 준비에 착수, 3차에 걸친 회의로 준비를 완료, 7월 26일에 양학회 평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동위원회

규정을 통과시키고 金東一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4월 7일 역원회에서는 화학초록위원회 규정 토의와 동위원회 위원선정이 있었고 4월 22, 23일 제17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졌다. 년회에서는 전 회장인 고 趙 廣河박사께 회갑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美国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장이고 일본동경 대학의 교환교수로 재임중이며 적외선 분광법에 관해서 권위자인 Bryce Crawford박사 초청강연회를 5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5월 6일에는 大邱 경북대학에서 각각 가졌다. 9월 21일에는 美国 Dartmouth 대학교교수이며 고분자 화학계의 권위자인 Walter H. Stockmayer 박사를 비롯하여 현재 美国에서 활동중인 盧玲潞·俞焱양박사를 초빙하여 韓國 화학회와 공동 주최로 성황리에 고분자화학술 강연회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가졌다.

10월 28, 29일 제18회 년회 및 연구 발표회는 大邱 경북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년회에서는 제11대 회장에 金東一박사를 선출하였고 12월 20일 국립공업연구소에서 화학교육강연회가 있었다. 12월 23일 화학술어제정 상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단위와 그 표기법 및 외국인 화학자 인명 국문표기법을 작성 토의 결정하였다.

安東赫박사 명예회장 추대

1977년 1월 12일 화학회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閔寬植박사 취임, 2월 23일 美国 일리노이즈대학교 Roger Adams박사 초빙좌담회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서실에서 개최하였으며 4월 28, 29일 제19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이어서 대학 일반화학 교과내용의 검토에 관한 대학화학교육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6월 15일 평의원 회에서는 명예회장 제도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회칙개정과 동시 安東赫박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결정하였다. 6월 29일 월남 원자력원장이며 월남화학회장 레반토이 박사 일행의 내한을 맞이하여 초빙 좌담회를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에 개최, 서독의 막스 프랑크 세포화학 연구소장이며 문헌대학교 교수로

서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대사의 메카니즘과 조절”에 관한 업적으로 196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Feodor Lynen 박사를 8월 26일부터 韓國에 초청하였다. (화학회 25년사 76면 참조).

10월 13, 14일 고교 화학교육 세미나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10월 27, 28일 제20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 이어서 대학 화학교육 심포지움을 가졌고 석유화학공업 심포지움도 가졌다.

화학교육에 관한 강연회 및 CHEM Study 발간

美國 프린스턴대학의 교수이며 탁월한 화학교육자인 Hubert Alyea 박사를 아세아 재단의 후원을 받아 화학회 초청으로 1968년 2월 5일에 대한, 2월 6일부터 3일간 학술강연 및 알리에 박사가 창안한 TOPS (Tested Overhead Projection Series)의 소개와 그 활용방법의 시범강습회를 가졌다. (화학회 25년사 78면 참조).

4월 25, 26일 제21회 년회와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재료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주한 美國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내한한 美國 뉴욕의 Blooklyn 대학교수이며 Microchimica Acta의 편집 책임자인 중국태생 T. S. Ma (馬祖聖) 박사를 맞이하여 서강대학과의 공동주최로 6월 4일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7월 3~5일 화학회·대한금속학회 후원으로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주최로 부식방지 세미나를 울산정유공장에서 가졌고 화학교육위원회는 韓國 과학교육연구회 및 유네스코 韓國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제 2차 화학교육 시범사업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1968년 8월 16일부터 17일 까지 2일간 각 대학, 고교의 화학관계인사 약 100명의 모임을 가졌다.

10월 18, 19일 제22회 년회와 연구발표회를 인

하공과대학에서 가졌고 제12대 회장에 金東一 박사를 선출하였다. CHEM Study를 발간 (교과서·실험지도서·교사지침서) 하였다.

5월 11, 12일 양일간 J. A. Campbell 박사를 UNESCO 韓國위원회와 공동으로 초빙, 화학교육에 관한 학술강연회를 서강대학교 및 서울사대에서 각각 당해대학의 후원과 학회주최로써 가졌다. Campbell 박사는 CHEM Study의 편집자간부의 한 사람이며 UNESCO 아시아지역 화학교육 시범센터의 지역 조종관으로 화학교육계에서 잘 알려진 분이다.

종신 회원제 설정

1969년 4월 15일에 열린 역원회, 평의원회에서는 학회 운영을 확고한 재정적 기반위에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의 일생동안의 회비를 앞당겨 일시에 납부하는 종신회원제를 새로 설정할 것을 결의하고 정회원 회비의 10배로 하기로 함. 제23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는 4월 25, 26 양일에 걸쳐서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6월 26일부터 이태리에서 개최된 IUPAC 제 25차 총회에는 화학회 회장 金東一박사 및 명예회장 安東赫박사가 본회의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7월 16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강당에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Heinz Rembold박사의 학술강연이 韓國생화학회와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8월 21일에는 朴達祚박사의 학술강연이 서울약대강당에서 열렸고, 9월 12일에는 李泰圭박사의 초빙 학술강연이 韓國과학기술연구소에서 韓國과학기술연구소, 韓國화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세계에 많은 자극을 주고 이땅에 아카데미한 풍토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제24회 년회 및 연구발표회가 11월 7, 8일 양일간에 걸쳐 光州市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는 화학 및 화학공학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